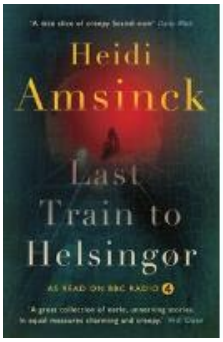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LAST TRAIN TO HELSINGØR
가제 : 헬싱외르 행 막차
저자 : Heidi Amsinck
출판사: Muswell Press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분량 : 208쪽
장르 : 스릴러소설



*** 체코 판권 계약 / 총 19편의 어둡고 음침한 미스터리, 호러 단편 모음**
*** "북유럽을 무대로 한 소름 끼치는 멋진 느와르" - 「데일리 메일」**

덴마크라고 하면 '휘게(hygge)'부터 떠오를 정도로 소박한 일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떠오른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분명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평화롭고 차분한 공기가 감도는 곳에서도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덴마크에서 나고 자라 영국에서 BBC 라디오 단편 작가로 활약 해온 저자는 북유럽의 이 뜻밖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단편 19편을 소개한다. 초자연적인 존재와 맞닥뜨린 사람들,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살인을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로알드 달(Roald Dahl)과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한 권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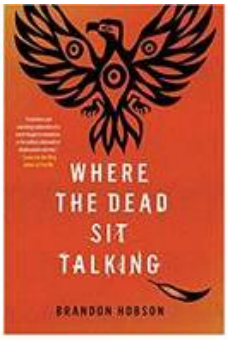
책 제목과 동일한 첫 번째 이야기 <헬싱외르 행 막차>는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각, 승객도 별로 없는 텅 빈 객차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컴컴한 풍경이 유독 낯설게 느껴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알 될 때, '혹시 차를 잘못 탄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이 차가 목적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가 닿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 혹은 상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그려낸다. <뮤직 박스>에서는 한 수집가를 통해 인간의 수집 욕구를 섬세하게 그린다. 저주받은 물건을 손 안에 넣기 위해 집착하던 수집가가 어떤 잔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에 이어, <외스트빅의 살구버섯>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이야기에서는 구드런 홀름이라는 한 여성이 봉착한 난감한 상황을 다룬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하지만 비밀의 내용이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구드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종일관 초조하게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다. <죽은 별의 빛>에는 은퇴를 앞둔 형사가 등장한다.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혔던 미결 사건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고 마침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진실은 무조건 다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가를 치러야 할까?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자기 손으로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해소했다면, 전부 죄가 될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느껴지는 존재에 관한 <위층 사람>은 인기척은 느껴지지만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상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집을 비우는 법이 없고,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알 수 없는 이웃의 모습이라곤 창밖에 희미하게 비친 얼굴이 전부라면, 그것도 발견한 순간 뒷걸음질 칠 정도로 기이하고 차가운 느낌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무시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야간 경비>라는 제목의 이야기에는 틈날 때마다 즐겨 찾는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에 푹 빠져 있다가 그만 폐관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전시실에 갇혀버린 한 남자가 등장한다. 익숙한 구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는 곳이라 생각했던 미술관은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순간 완전히 낯선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수도 없이 봤던 작품들이 미세하게 바뀌는 불가해한 장면을 목격한 이 단골 관람객은 과연 무사히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새장에 사는 새>는 인간이 화폐 단위로 물건에 부여하는 '가치'를 조롱한다. 물건 혹은 상품의 가치가 돈을 얼마나 치를 만한 것인가에 좌우되고, 그 돈의 규모는 교묘한 조작과 전략을 통해, 가령 근거 없는 미스터리한 특성을 덮어 씌우거나 홈쇼핑에서 자주 쓰는 수법처럼 '세상에 하나 뿐인 물건' 같은 한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터무니 없는 값이 매겨질 수 있음을 풍자한 내용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대너스가드의 기적>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여성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장 간절히 바랄 만한 상황에 신기한 일을 겪는 이야기를 통해 기적과 아주 낮은 확률로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하얀 비처럼>에서는 천사가 어쩌면 인간의 모습으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한 노인과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노인과 학대에 시달리는 소녀가 서로를 알게 되고 더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함께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아가는 뭉클한 과정이 그려진다. 몇몇 이야기는 초자연적 소재가 등장하지만 모두 인간 본연의 특성, 욕구를 날카롭게 그리고 있으며,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심오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일관 위트를 잃지 않는, 현대판 동화라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단편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 소개>

하이디 앰싱크(Heidi Amsinck)는 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현재 영국에서 글을 쓰고 있다. BBC 라디오 등에서 의뢰를 받아 다수의 스토리를 제공해 왔다. VS Pritchett Memorial Prize 결승에 오른 경력이 있다.



제목 : WHERE THE DEAD SIT TALKING
가제 :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자 : Brandon Hobson
출판사: Soho Press
발행일: 2018년 2월 2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2018 내셔널 북 어워드 소설 부문 결승작 / 커커스 리뷰 선정 2018년 최우수 도서 / 2019 아스펜 워즈 문학상(Aspen Words Literary Prize) 후보
* "이야기를 통제하는 탁월한 실력을 지닌 작가는 우아한 표현, 성긴 디테일이 분포된 여러 장면과 시간으로 독자들을 데려간다. 단순한 성장소설 이상의 놀랍고 감동적인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눈 앞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인디언으로 태어나 신을 찾으러 간다고 훌쩍 떠나버린 아버지 뒤에 엄마와 둘이 남아 어린 시절부터 굴곡 많은 삶을 견뎌야 했던 소년은 힘들게 찾은 안정 뒤에 또 다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는다. 열다섯 살이던 1989년,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감옥에 간 엄마 대신 돌봐줄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 체로키 인디언 소년 시쿼야는 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인디언 소녀와 만나고, 술과 약에 찌든 엄마와는 또 다른 문제에 찌든 어른들을 목격한다. 시쿼야의 회상으로 그려지는 그 때 그 시절은, 외면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삶과 그 속에서도 끝내 남는 희망에 대해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이야기하며 특별한 울림을 선사한다.

엄마는 시쿼야가 기억하는 한 늘 취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거의 매일 밤을 술집에서 전전하다 담배냄새와 시큼한 술 냄새에 절어 들어온 엄마를 보며 시쿼야는 처음에 엄마가 큰 병에 걸린 줄 알았다고 회상한다. 이기지도 못할 독한 술을 퍼 넣은 바람에 새벽까지 토하고, 날이 밝으면 두통과 복통을 호소할 때 어린 시쿼야는 그 옆에서 엄마 등을 두드리고, 어릴 때 배운 노래를 흥얼대며 얼른 엄마가 낫기만을 기도했다. 엄마를 함부로 대하며 욕을 하던 남자들, 맨 정신일 때가 거의 없어 아이가 다치거나 힘들어해도 바로 알아보거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던 엄마, 그 속에서 혼자 견디는 동안 시쿼야는 모든 걸 씹어 삼키는 아이가 되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슨 상황이 닥쳐도 입 꾹 다물고 묵묵히 참는 과묵하고 침울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엄마가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거듭 적발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 시쿼야의 삶은 더욱 고달파 졌다. 아동 쉼터, 위탁 가정, 심지어 소년 구류 시설까지 전전하며 '남 괴롭히는 일이 취미이자 전부인 사람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루하루를 또 다시 견뎌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를 장기적으로 돌봐줄 위탁 가정이 나타났다. 중년 부부인 해롤드와 아그네스의 집으로 보내진 시쿼야는 부부가 먼저 돌보고 있던 다른 위탁 아동 둘과 더불어 한 지붕 아래에 여러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사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열다섯 살인 시쿼야보다 두 살 어린 조지, 그리고 두 살 많은 누나 로즈마리, 너무 일찍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을 성심 성의껏 돌봐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위탁 부모님은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시쿼야의 가장 절실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곤 없었던 성장 환경 탓에 다 필요 없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그리웠고 필요했던 시쿼야는 해롤드와 아그네스의 보살핌 아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다. 환한 낮에도 가만히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밤이면 심한 몽유병 때문에 침대에서 기어나가 돌아다니는 조지와 한 방을 쓰는 생활에도 금방 적응하고, 자신처럼 인디언 출신인 로즈마리 누나에게는 보자마자 진한 유대감을 느낀다. 하지만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던 위탁 가정 생활은 잔잔한 수면 아래 감춰진 비밀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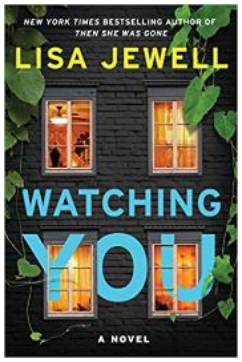
카이오와 인디언인 로즈마리는 조지처럼 집 안에 틀어박혀 있기 보다는 스케치북을 들고 근처 숲으로 산책을 나서곤 했다. 아동 쉼터에서 지낸 몇 달 동안 답답해서 한밤 중에 몰래 산책을 다니다가 여러 번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적 있었던 시쿼야는 그런 누나를 따라다니며 자유로움을 한껏 누린다. 같은 인디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통하는 것이 많았던 두 사람은 자연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쿼야는 로즈마리의 내면에 죽음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한다. 자해 이력이 있는 누나는 시쿼야 못지 않게 여러 시설과 결코 친절하지 않았던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동안 더욱 생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고 죽음의 유혹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시쿼야는 로즈마리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로즈마리에게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본 시쿼야는 영혼이 하나로 연결 된 듯한 친근감을 느끼는 동시에 로즈마리 자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위탁 부모인 해롤드가 불법적인 일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지하실에 몰래 차린 사업장, 뒷마당 헛간 구석에 백 달러짜리를 수십 장씩 돌돌 말아 담아둔 돈 가방이 아이들에게 발견되면서 고요했던 평온은 흔들리고 시쿼야와 로즈마리가 힘들게 찾은 안정감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여전히 부당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수민족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복지라는 미명으로 마련된 제도가 얼마나 부실한지, 부모라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대체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어떤 고통을 얼마나 깊이 느끼며 견디고 있는지 담담하지만 날카롭게 그린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랜든 홉슨(Brandon Hobson)은 체로키 인디언이다. 「Conjunctions」, 「NOON」, 「The Paris Review Daily」, 「the Believer」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왔으며 2016년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Desolation of Avenues Untold』, 『Deep Ellum』, 『The Levitationist』 등이 있다.

제목 : WATCHING YOU
가제 : 창 밖으로
저자 : Lisa Jewell
출판사: Century
발행일: 2018년 7월 12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



***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선데이 타임스」(1위)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
*** "한 자리에서 다 읽었다. 흡입력 강한 줄거리, 매력적이지만 믿을 수 없는 인물들, 조마조마한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들까지, 작가가 또 한 건 해냈다." - 『Behind Her Eyes』의 작가 새러 핀보로**
*** "가장 알맞은 순간에 꼬이고 뒤엉킨 상황을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작가" - 「북리스트」**

의사, 변호사, 돈도 많고 명성도 높은 학자들이 주로 사는 고급 주택가 멜빌에는 인근 지역 학교들 중 거의 절반을 도맡아 개선시키는데 앞장 서온 톰 피츠윌리엄 교장도 살고 있다. 변호사인 아내와 이제 열네 살인 외동아들과 함께 사는 그가 동네에서 유명한 이유는 그간의 업적 외에 또 하나가 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은 물론 아들뻘 십대 소녀들까지 그에게 푹 빠질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여성들에게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 두근대게 하는 사람인 톰이 자기 집 부엌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될 줄 누가 알았을까? 고상하고 예의 바른 멜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서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각자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은근히 서로를 지켜보고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 그 내밀한 눈길 속에 담긴 뜨거운 욕망과 집착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가 톰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나씩,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꽁꽁 숨겨진 비밀과 그 비밀을 다 지켜보고 있던 눈길에 관한 오싹한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조이가 톰을 처음 본 건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훤히 자리한 큰 창문을 통해서였다. 조이에게 멜빌은 꼬마 시절부터 언젠가 꼭 살고 싶은 동네였고 마침내 멜빌의 대저택 중 한 곳에 둥지를 틀었다. 열살 많은 오빠 잭 덕분이었다. 브리스톨 종합병원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오빠 잭은 조이의 기준으로는 농담도 할 줄 모르고 영 친해지기 힘든 타입인 제시카와 결혼을 한 직후 멜빌에 집을 구했다. 그리고 거의 독채 같은 2층을 4년간 이비자에서 살다가 돌아온 여동생 부부에게 내어준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허전함이 영 달래지지 않아 여행도 하며 방황하던 조이는 이비자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와 다소 성급하게 결혼을 했다. 맨발로 모래사장에 서서, 호텔 매니저들 몇몇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그 직후 브리스톨로 돌아온 여동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음 넓은 오빠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조이는 올케 언니의 진짜 의중을 꿰뚫고 있었다. 몇 개월 뒤 태어날 오빠 부부의 첫 아기를 보육교사 출신인 조이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으리란 기대가 같이 살자고 제안한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었다.

어쨌거나, 집 구할 여유도 없는데 이런 호화 저택에서 신혼을 보낼 수 있다니, 조이는 꿈만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긴 미남으로 보이던 남편 알피는 영국에서 보니 그저 그런 남자였고 결혼을 너무 급하게 했나, 싶은 생각이 막 밀려오던 시기에 그런 회의감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창문 밖으로 처음 본 톰이었다. 나이도 훨씬 많고, 유부남에 다 큰 아들까지 있는 중년 남성에게 완전히 꽂혀버린 자신을 조이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면 다른 감각이 모두 멈춰버린 채 넋을 놓고 그를 멍하니 쳐다보는 지경에 이른다. 조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리라 확신했지만 뜻밖의 인물이 그런 조이의 속타는 감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톰의 아들, 프레디였다.

영재의 자질을 두루 갖춘 프레디는 두 집 건너 의사 선생님 집에 함께 사는 조이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눈치챘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거나 눈이 마주칠 때 이상하게 반응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증거'가 프레디의 노트에 축적되는 중이었다. 영국 정보부의 전문 첩보원을 꿈꾸는 프레디는 멜빌에 사는 모든 이웃사람들, 학교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모두 기록했다.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서 '수사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눈길로 아버지를 응시하는 조이의 얼굴은 그런 프레디의 감시망에 진작부터 걸려들었다.

톰을 주시하는 또 한 사람, 톰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여학생 제나에게는 조이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일단 가장 절친한 친구인 베스가 다른 여학생들처럼 교장 선생님을 무슨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이 이해도 안될뿐더러 찜찜했다. 제나의 눈에 톰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모범적인 시민이자 학생들을 누구보다 아끼는 진정한 교육자라는 이미지와 안 맞는, 뭔가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의 범위로 넘어가버린 엄마의 편집증이 날로 심해지고, 엄마가 톰의 가족과 수십 년 전 어느 휴가철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얽혔던 기억을 자꾸 들먹이며 그 집 사람들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도 제나의 그러한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일방적인 애정이줄 알았던 친구 베스가 톰과 석연치 않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제나의 의혹은 점점 짙어졌다.

목과 등에 무려 스무 번도 넘게 칼에 찔려 살해 당한 톰의 행적을 수사하던 경찰은 바로 전날 밤, 제나가 한 호텔에서 그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제나는 톰이 고작 몇 분 머물렀고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곧바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 그러나 20여 년 전, 영어선생님이던 톰에게 주체할 수 없이 반해버린 어느 여학생의 일기를 통해 톰의 충격적인 과거와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멜빌의 화려한 집들마다 공을 들여 감춰왔던 치부와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흡입력 강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사 주웰(Lisa Jewell)은 1998년 베스트셀러에 오른 데뷔 소설 『Ralph's Party』를 시작으로 열다섯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소설가다. 대표작으로는『Then She Was Gone』,『I Found You』, 『The House We Grew Up In』 등이 있다.

제목 : WHAT THE WIND KNOWS
가제 : 바람에 담긴 이야기
저자 : Amy Harmo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3월 1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SF/역사/로맨스소설

* **"분위기 있고 마음을 잡아 끄는 마법 같은 이야기. 오랫동안 마음을 흘릴 책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Tuscan Child』의 작가 리스 보웬**
* **"작가는 현대와 전쟁으로 찢긴 1921년의 아일랜드를 넘나들며 대서사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On the Island』의 작가 트레이시 가비스 그레이브스**

여섯 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앤은 꼭 고향에 재를 뿌려달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 아일랜드로 향한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떠나온 이후 내내 그리워했던 그곳은 역사가인 앤에게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두었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야 앤에게 보여준 사진들과 수많은 자료들, 그 속에 담긴 잊혀졌던 이야기들에 매혹된 앤은 할아버지의 유골과 함께 찾아간 아일랜드에서 기이한 일을 겪는다. 내전이 코앞으로 닥친 위태로운 시기,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그 혼란 속에서 위기에 맞닥뜨린 시대로 훌쩍 떠나온 것이다. 소설에서나 보던 시간여행의 주인공이 된 앤은 할아버지의 엄마와 이름도 같을 뿐만 아니라 꼭 빼 닮은 외모 때문에 자신을 증조모 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불가능한 사랑에 빠진다. 앤은 다시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가족사, 혹은 할아버지도 다 알지 못했던 그 시절 아일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일랜드의 독립을 염원하던 사람들과 이를 반란으로 여긴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이 한창이던 1920년대를 배경으로 가슴 아픈 역사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할아버지 이오인은 앤과 함께 미국에서 사는 동안 아일랜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는커녕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말조차 꺼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가자고 졸라댄 장본인은 앤이었다. 하지만 진통제 없이는 한 시간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후, 이오인은 소중한 손녀에게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보여준다. 가지런히 정리된 편지 다발과 사진들 속에는 앤이 늘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증조부와 증조모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앤은 증조부 데클란과 증조모 앤이 100여 년 전, '부활절 봉기'로 알려진 아일랜드 공화당의 봉기를 이끈 7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산 막 디어르마다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실도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오인은 산 막 디어르마다를 통해 데클란과 앤 부부가 아일랜드 공화당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독립을 반대하던 가족들과 깊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웃음기 전혀 없는 비장한 얼굴로 낡은 사진에 담긴 증조모 앤의 얼굴은 듣던 대로 앤과 너무 닮은 모습이었다. 짙은 머리카락에 초록색 눈, 진지한

표정까지, 사뭇 근엄하게 느껴지던 증조모 앤의 얼굴에 아주 살짝 미소가 나타난 것은 증조부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 유일했다. 이오인은 토머스 스미스라는 이름의 의사로, 어릴 때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였던 건 맞지만 부적절한 애정 관계는 아니었다고 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오인의 유골을 안고 100여 년 전 조부모, 증조부모들이 살았던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앤은 그곳 토박이들로부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접한다. 이오인의 엄마, 앤이 내전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그 시기에 어딘가로 사라졌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반란군으로 찍혀 목숨을 잃던 시기라 당연히 죽은 줄로 알았던 가족들이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어디선가 바람처럼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린 아들을 남편 친구인 토머스에게 맡겨두고 홀연히 사라졌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여인, 사람들은 앤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앤은 할아버지의 유품 중 토머스 스미스의 일기로 보이는 기록을 샅샅이 읽으며 베일에 싸인 가족사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역사와 갑작스러운 가족 이야기에 푹 빠져 할아버지가 당부한 길 호수로 유골을 들고 찾아간 앤은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겨우 정신을 차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희미한 사진에서 본 그 남자, 토머스 스미스가 바로 앞에서 있고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심하게 다친 상태로 그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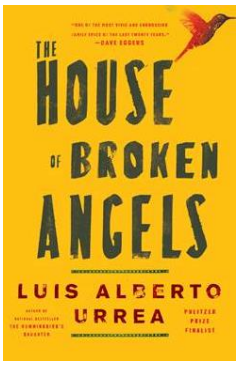
토머스는 친구의 아내이자 양아들이나 다름 없었던 이오인의 엄마인 앤을 거의 1년째 애타게 찾던 중이었고, 난데없이 나타난 이오인의 손녀 앤을 그 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이 2016년에서 왔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자신이 없었던 앤은 뭐라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가 그렇게 오해하도록 일단 내버려두기로 결심한다. 왜 자신이 이 시대로 왔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꼬마가 되어 나타나고, 자신을 '엄마'라 굳게 믿고 엄마가 돌아왔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의도치 않은 거짓말은 앤을 짓누른다. 이오인의 부친,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이라 생각하는 증조부 데클란이 산 막 디어르마다와 함께 공화당원으로 활동하다 영국군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 싸늘히 죽어가던 데칼란을 뒤늦게 발견한 토머스가 어린 이오인과 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앤은 낡은 숄 한 장만 남긴 채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앤은 증조모 앤의 행방을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토머스를 향한 마음은 처음의 당혹스러움과 고마움을 넘어 애정으로 바뀌고 그 감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앤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로 마음을 바꾼다.

분열된 나라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 없이 싸우고 찢긴 국민들의 아픈 역사를 시간여행과 이루어질 수 없는 로맨스를 통해 절묘하게 그려낸 독특하고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하몬(Amy Harmon)은 휘트니 상(Whitney Award) 수상작 『The Law of Moses』를 비롯해 『From Sand and Ash』 등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를 10권 이상 발표한 소설가다. 현재까지 출간된 책들은 종이 책과 전자 책 통산 3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17개 언어로 번역됐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HOUSE OF BROKEN ANGELS
가제 : 망가진 천사들의 집
저자 : Luis Alberto Urrea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가정

* New York Times 100 Notable Books of 2018 선정

*** 헐리우드의 스톤 빌리지 프로덕션의 스콧 스테이노프 TV 영상화 옵션! - 스콧 스테이노프는 마이클 코넬리, 필립 로스의 작품을 영화화 한 프로듀서**

*** 닐 게이먼, 데이브 애거스, 리처드 루소 등 유명 작가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BBC, 파이낸셜 타임스, 오프라 매거진, 퍼블리셔스 위클리, 키커스 등에서 쏟아지는 호평**

마치 『대부』의 꼴리오네 집안의 대표가 '갓 파더' 돈 꼴리오네이듯이, 드 라 크루즈 집안의 대표는 일명 '빅 엔젤' 미구엘 엔젤 드 라 크루즈이다. 그는 미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는 수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있는 70대 가장이며, 그의 생일은 매년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올해, 암이라는 고약한 병이 미구엘을 덮쳤고, 세상과 작별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그는 마지막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 몸은 함께 있지 못해도 사랑만 있다면 끈끈한 결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일을 일주일도 앞두지 않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다. 100세 노인인 미구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한참 전에 미구엘의 생일파티를 위해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린 뒤라 다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때 샌디에이고로 올 준비를 마쳤을 텐데, 장례식 때문에 번거로운 여행을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씩 하게 해야 하나? 다들 빠듯한 살림에 차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미구엘은 짜증이 솟구쳤다. "어머니 왜 하필, 지금!" 게다가 늘 그랬듯 아내, 아이들, 여동생도 최종 결정은 미구엘에게만 미뤄둘 뿐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 여유롭고, 게으른 식구들이 제시간에 딱딱 움직이도록 평생을 애써온 미구엘은 마지막까지도 이 역할을 떠 안게 됐음을 깨닫고 다소 황당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과 자신의 생일,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1박 2일 동안 샌디에이고 집에서 하루는 장례식, 다음 날은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가톨릭 신자였지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드 라 크루즈 집안 사람 중 절반은 모르몬교도이고 심지어 UFO를 숭배하는 집단

에 들어가 '아눈나키'라는 신이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다. 복음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무교도 있었다. 조카녀석들 중에 한 명은 진지하게 자신이 바이킹의 후예라고 믿었다. 갑자기 장례식 치를 장소를 찾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 각양각색의 종교를 다 배려할 수도 없었다. 미구엘이 가족들의 시간과 자신의 건강까지 고려한 묘책이, 이 1박 2일 행사였다.

이름보다 '빅 엔젤'로 더 많이 불리는 미구엘의 생일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리틀 엔젤'도 오기로 했다. 엄마가 백인인 다른 배다른 동생이었다. 다들 백인 혼혈인 그와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래도 빅 엔젤은 그를 '우리 막내'라고 부르며 스물여덟 이나 된 다 큰 청년을 꼬맹이처럼 애정을 담아 대하곤 했다. 오랜 세월 '리틀 엔젤'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일종의 완충 구역이 형성되어 있어, 서로 마음 다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리틀 엔젤도 피 반쪽이 섞인 가족들과 아예 남남처럼 지낼 수도 없고, 넉살 좋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 되는 성격이라 이 완충 구간을 오히려 반겼다. 그러나 형의 목숨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면 불편하더라도 만나서 작별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특별 손님, '리틀 엔젤'까지 모두 모이게 되었다. 감옥에서 갓 나온 말썽쟁이, 대학생, 도박판에서 판돈 척척 거는 큰 손과 천진난만한 아이들,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늙은이들까지 말이다.

소란스러운 식구들이 모여 이미 세상을 떠난 '마마 아메리카'의 죽음을 애도하고 곧 그 뒤를 이을 빅 엔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웃지 못할 사건들과 폭소를 자아내는 순간들, 그리고 수십 년 전,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야만 했던 멕시코 인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작가 특유의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진다. 웃고 울게 하는 그 이야기에는, 작가의 특유의 정곡을 찌르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솜씨의 진면목이 담겨 있다.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특징적인 면모와 함께, 작가가 직접 겪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달 후 형이 세상을 떠난 자전적 경험이 진하게 녹아 있다.

목전까지 죽음이 임박한 빅 엔젤은 매 순간 무너지는 몸과 정신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족의 역사, 평범한 사람들과 영웅과 다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족의 유대를 상기시킨다. 독자로 하여금 빅 엔젤의 마지막 파티를 구경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자아내고 소소하지만 너무나 친근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따뜻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이스 알베르토 우레아(Luis Alberto Urrea)는 논픽션 『The Devil's Highway』로 2005년에 퓰리처 상 결승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다. 소설 『Hummingbird's Daughter, 『Into the Beautiful North』, 『Queen of America』와 PEN/포크너 상(PEN/Faulkner Award) 결승작으로 선정된 단편 모음집 『The Water Museum』 등을 썼다. 라난 문학 상(Lannan Literary Award), 에드가 상(Edgar Award)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국 예술문예아카데미가 수여하는 문학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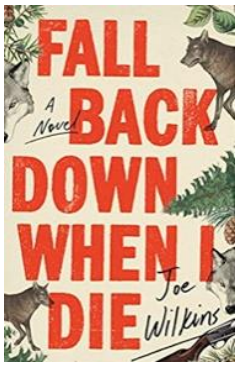
Updates for
THE HOUSE OF BROKEN ANGELS
Luis Alberto Urrea

We're very happy to let you know that along with the New York Times 100 Notable Books of 2018, THE HOUSE OF BROKEN ANGELS made quite a few "best book of the year" lists in December, including NPR, PBS, The San Francisco Chronicle, LitHub, Newsday, Buzzfeed, BookPage, the New York Public Library...

Luis Urrea was also awarded the prestigious 2019 Rittenhouse Lifetime Achievement Award by PubWest, the leading trade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book publishers in the US, calling him a "a legend, a modern-day Mark Twain."

Rights to THE HOUSE OF BROKEN ANGELS have been sold to Albatros in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Gabo in Hungary, Einaudi/Stile Libero in Italy, Phantom Press in Russia, Alianza AdN in Spain, and Cinar in Turkey.

추가 업데이트



제목 : FALL BACK DOWN WHEN I DIE
가제 : 죽음 뒤에 낭떠러지
저자 : Joe Wilkin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9년 3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프랑스, 스페인 판권 계약**

*** "고단한 삶, 쓸쓸한 희망을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로 그리며 특별한 경지에 오른 소설. 아무리 칭찬해도 충분하지 않을 작품이다" – 퓰리처 상 결승에 오른 소설가 루이 알베르토 우레아**

태어나 지금까지 몬타나 주 깊은 산 속 트레일러에서 살아온 웬델 뉴먼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온다. 수확 철이라 하루 종일 콤바인에 앉아 드넓은 밭을 오가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쓰고 여기저기 기름 때가 묻은 그를 찬찬히 조심스럽게 살피던 방문객은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다. 바로 옆에는 작은 꼬마가 서 있었는데, 웬델은 그 아이가 조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형제자매 하나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조카라니? 하지만 웬델의 머릿속에 금세 레이시가 떠올랐다. 웬델의 삼촌이 돈을 벌러 멀리 떠나고 꼬박꼬박 오던 편지마저 뜸해진 후 웬델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던 사촌누나, 십대 후반까지 단짝 친구처럼 꼭 붙어 지내면서 엉뚱한 장난도 많이 치고 오밤중에 산속을 함께 떠돌기도 했던 그 누나가 낳은 아이라는 이야기였다. 웬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 특히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나지막이 전해준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다. 이름이 라우디라는 난생 처음 본 조카가 텅 빈 아파트에서 일주일 넘게 혼자 갇혀 있었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충격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으며 이후 말을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심리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라우디의 새파란 두 눈을 보면서 웬델은 레이시와의 무수한 추억을 떠올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던 트레일러에는 그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스물 넷,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라 생각할 만한 나이지만 웬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는 어릴 때 사라졌고 남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피땀 흘려 일했지만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제대로 대기도 역부족이었다.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던 엄마는 아무 소용도 없었던 수술로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모두 잃고 웬델의 곁을 떠났다. 남은 건 일 년 째 밀린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부모님이 내지 않아 그대로 넘어온 밀린 세금이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달러 남짓에 하루하루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한창 잘 먹고 사랑 받아야 할 어린아이를 돌보다니, 이성적

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웬델은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두 눈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행동이 거세지는 라우디가 처음부터 좋았다. 그냥 보듬어주고 싶었다. 마약에 빠져 스스로 삶을 망쳐버린 레이시가 아이에게 어떤 몹쓸 기억을 남겼는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고,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웬델은 주로 글렌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아버지처럼 마을 토박이인 글렌은 입도 거칠고 걸핏하면 투덜댔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라우디가 갑자기 식구가 된 다음 날, 웬델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곁에 두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을 때도 글렌은 선선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웬델과 라우디의 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 웬델에게 매디라는 또래 여학생이 나타난다. 매디는 그가 사는 외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 질리언의 딸로, 시내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웬델을 처음 본 후 라우디가 읽을 만한 책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사실 매디는 웬델이 평생을 살아온 산 중턱의 마을 델피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엄마가 왠지 모르게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는 아빠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웬델에게서 델피아에 관한 이야기를, 어쩌면 엄마가 말해주지 않는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매디는 그와 친해지기로 결심하지만, 그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델피아를 비롯한 마을 전체는 다른 곳과는 다른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늑대 사냥이 오바마의 당선으로 처음으로 거의 30년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오랜 세월, 산에서 늑대며 코요테가 언제 나타나 가축을 해치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도 사냥 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생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냥이 가능해지는 첫날, 모두가 라이플을 가지고 나와 모조리 없애버릴 계획도 세워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질리언은 겨우 눌러둔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에 주저앉고 만다. 그녀의 남편이자 매디의 아빠, 케빈은 여우 사냥에 앞장섰던 웬델의 부친, 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와 기약 없는 사냥에 나섰다가 바로 그 친구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벌과 케빈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벌은 정말 살인자일까? 매디와 웬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여우 사냥이 벌어진 날, 웬델은 영문도 모른 채 총을 든 사람들에게 공격 당하고 라우디를 지키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만다. 목숨 바쳐 지키고픈 존재를 위한 묵묵한 희생,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심,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거칠고 처절한 삶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상처를 여러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선명하면서도 따뜻한 그림처럼 그린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 윌킨스(Joe Wilkins)는 회고록 『The Mountain and the Fathers』로 GLCA 신인작가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다. 「하버드 리뷰」, 「조지아 리뷰」, 「슬레이트」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푸시카트 상을 수상하고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 PEN/USA 어워드 결승에 올랐다. 현재 오리건 주 린필드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Updates for
FALL BACK DOWN WHEN I DIE
Joe Wilkins

A quick note to let you know we've now closed with Errata Naturae in Spain, who publish authors including Rick Bass, Jim Harrison, Annie Dillard, Paul Auster, Francine du Plessix Gray, and Edward Abbey to name a few.

"In an electric narrative that busts out in a rare kind of rural poetry when you least expect it, this brilliant novel gives us hard-pressed country people trying to make a life in a beautiful but unforgiving landscape among neighbors and family who, thanks to political disinformation, have slid us from civility to slander, facts to lies, law to vigilantism, and now answer the Gospel call to compassion with their arsenals. *Fall Back Down When I Die* places red state zeitgeist and gray wolves squarely in its sights, then shoots both, to my grateful amazement, with profound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Thank heaven for Joe Wilkins's voice of mercy calling out in the post-Western night."

—David James Duncan, National Book Award finalist and bestselling author of *The Brothers K* and *The River Why*

"*Fall Back Down When I Die* is populated by vibrant characters drawn with fairness and deep heart, boys and men, girls and women who will get under your skin and stay there, and is full of vivid descriptions of the Montana landscape that are spot-on and swoon-worthy."

—Pam Houston, author of the national bestsellers *Cowboys Are My Weakness* and *Sight Hound*

Fall Back Down When I Die is a masterpiece. Lean and authentic… A twenty-first-century western… In prose as rugged and beautiful as the story's Montana setting, Wilkins has written one of the best novels I've read in years. An absolutely stunning book in every way."

—Nickolas Butler, author of the national bestseller *Shotgun Lovesongs*

"Joe Wilkins has risen to a very special peak with this heartrending novel of hard living and lonesome hope… **I cannot praise it enough**."

—Luis Alberto Urrea, Pulitzer Prize finalist and author of the national bestsellers *The House of Broken Angels* and *The Hummingbird's Daughter*

"…[A] beautiful novel."

—Elizabeth Crook, author of *The Which Way Tree*

NON-FICTION

제목: SUPERHEAVY

가제: 초중원소: 주기율표의 탄생과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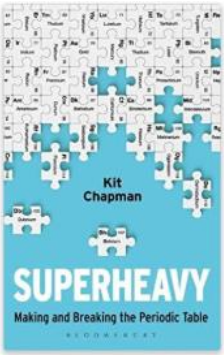
저자: Kit Chapma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PLC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과학/화학



*** 주기율표에 추가되며 과학은 물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원소들, 원소의 발견이 일으킨 갈등과 전쟁,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

과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일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는 네모 반듯한 표 안에 알파벳 약자와 번호로 기입된 암호 같은 글자들로 흐릿하게 기억될 것이다. 몇 십 개 정도를 암기해서 쪽지 시험을 봤던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주기율표를 배울 때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원자가 발견되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 표가 114번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렀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여기서 네 개의 원소가 공식적으로 추가되었고, 그저 표의 길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도 이를 뒤늦게 깨닫고 그 스토리에 매료된 저자는 왠지 어렵고, 과학자들이나 좋아할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새로운 원자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들려준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질량이 늘어나므로 최근 발견된 네 원소는 아주 무겁다는 의미로 '초중원소(superheavy elements)'로 불린다. 총 3세대에 걸쳐 영웅과 악당, 핵폭탄, 자연재해, 자동차 경주, 착륙 사고와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 세상에 등장한 이 네 가지 초중원소의 이야기는 나이, 국가, 인종, 성별을 뛰어넘은 전 세계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화학 원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과학계에서는 총 172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118번까지 완성된 주기율표는 전체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인간이 만든', 즉 합성된 네 가지 초중원소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먼저 원자 폭탄과 미국, 소비에트 연방의 치열했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자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의 탄생과 입자 물리학에 대변혁을 일으킨 어니스트 로렌스와 '게릴라 과학자'로 불리며 입자 물리학에 새 시대를 연 또 한 명의 과학자 유리 오가네시안, 그리고 핵 과학 분야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이 된 빅터 니노프의 이야기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적인 발견 그 이상의 엄청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원자를 확인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장비가 사용되는지, 그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함께 소개한다. 직접 4개 대륙에 위치한 8개국을 찾아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쓴 이들과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저자는 초중원소를 개발한 사람들을 과학자가 아닌 '탐험가'라 칭한다.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을 처음 찾은 사람들, 원자 구조의 법칙을 다시 쓰고 절대 불변하리라 대다수가 확신했던 사실들을 뒤엎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과 물리학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 이 놀라운 발견과정과 의미를 전혀 따분하지 않게 보여주는 유익하고 재미 있는 과학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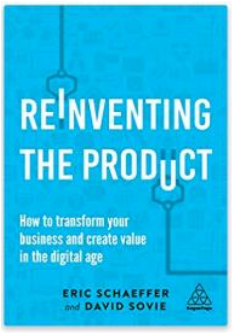
<목차>

시작하면서 / 머리말
1부: 원자의 산물 (1-7장)
1장. 현대판 연금술
2장. 길먼 홀의 비밀
3장. 핵무기를 만들다
4장. 수퍼맨 vs. FBI (이하 생략)
2부: 초페르뮴 전쟁 (8-15장)
8장. '노빌리비움(Nobelievium)'
9장. 러시아의 플레로프로부터
10장. 동쪽 그리고 서쪽
11장. 크산타시아와 마법의 숫자 (이하 생략)
3부: 화학의 종말 (16-21장)
16장. 벽이 허물어진 후
17장. 니노프의 사기행각
18장. 새로운 희망 (이하 생략)
맺음말

<저자 소개>

키트 챕먼(Kit Chapman)은 수상 경력이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방송인이다. 약사이기도 하며 의학저널인 「The Practitioner」와 영국의 대표적인 약학 매거진 「Chemist+Druggist」에서 일했다. 영국 의학협회 웹 사이트 관리자, 「The Pharmaceutical」 저널 임상 편집자로도 활동하다가 <Chemistry World>의 논평 편집자로 일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선데이 텔레그라프」에도 글을 기고해 왔으며 BBC, 스카이 뉴스에도 자주 출연했다.

제목 : REINVENTING THE PRODUCT
가제 : 상품의 재탄생
저자 : Eric Schaeffer, David Sovie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9년 3월 3일
분량 : 304쪽
장르 : 비즈니스



* "탄탄한 조사 결과, 생생한 설명, 구체적인 제안이 모두 담긴 귀중한 가이드. 기업과 리더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우선순위와 역량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 마이클 G. 자코비데스(Michael G. Jacobides
*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가치 창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신선한 생각과 고무적인 실무적 조언을 제시한 책" - 아마존 웹 서비스 기술부 부대표, 마르코 아르젠티(Marco Argenti)

3,000년 전 바퀴의 등장은 오직 개개인이 가진 힘만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했던 시대가 가고 생각지도 못한 무게도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용성'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100년 전 등장하여 전구, 자동차, 냉장고 등 현재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의 시초가 된 전기와 전기모터가 일으킨 변화도 그에 못지 않고, 1980년대에 온 세상을 놀라게 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퍼스널 컴퓨터의 탄생도 프린터, 게임 콘솔, 의료 장비의 개발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을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까? 이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눈 돌아간다'는 표현이 딱 적절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각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두 저자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이 불러올 변화를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전망한다. '무슨' 변화가 '왜' 일어나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다보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과 함께, 모든 업체가 끊임없이 제품의 혁신을 고민하고 사업의 핵심으로 여겨 왔지만 왜 기존의 방식을 다 버려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지금까지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을 살펴본 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고 업체들은 이 흐름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자동차, 시계, 냉장고, 등 우리가 매일 접하고 이용하는 물건들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특성이 바뀌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상품이 개개인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물건이 아닌, 여러 물건과 연계, 연동되고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은 물론 업무 방식, 사업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변화다. 두 저자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제품 개발 방식을 이미 철저히 깨부순 과정을 짚어보고, 산업계가 제품 개발 전략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수립해야 하는지, 산업별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디지털 제품의 수명관리와 플랫폼 엔지니어링, 기업의 디지털 연속성이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한다.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제품 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한 책으로, 산업계 리더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새 시대로의 진입: 디지털 시대, 스마트하게 연계된 제품들
01. 디지털이 만든 제품 개발 과정의 변화 - 생각보다 빠르다!
02. 상품의 재탄생을 이끄는 동력
2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재탄생 (03-08장)
03.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제품: 적응형 / 협동형 / 사전대비형 / 책임형
04. 거대한 변화 첫 번째: 특성에서 경험으로
05. 거대한 변화 두 번째: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06. 거대한 변화 세 번째: 제품에서 플랫폼으로 (이하 생략)
3부. 재탄생의 과정 (09-12장)
09. 제품 개선 관리에 필요한 7가지 핵심역량
10. 생활용품과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한 로드맵 (이하 생략)
4부. 상품이 맞이할 미래의 현실
13. 2030년 전망: 다시 태어난 제품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할까 - 크라우드소스를 통해 다섯 가지 장면으로 보는 변화의 이야기

<저자 소개>

에릭 쉐퍼(Eric Schaeffer)는 경영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Accenture)의 제품산업 X.0 부서 선임 관리자 겸 글로벌 리더로 제품개발, 디지털 운영, 제품 서비스 최적화 등에 참여해 왔다.

데이비드 소비(David Sovie)는 액센츄어의 선임 관리자, 최첨단 산업부 글로벌 리더로 여러 산업 분야의 고객들이 자사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목 : THE FUTURE STARTS HERE
가제 : 여기서 미래가 시작된다
저자 : John Higgs
출판사: W&N
발행일: 2019년 5월 예정
분량 : 352페이지
장르 : 인문

***"지난 100여 년 간 세상과 인류의 마음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기술적 변화에 대해 정확한 지도다. 읽고 나면 우리가 살아 낸 시대에 대하여 큰 의미들을 어떻게 이렇게 놓치고 살았을까 자문하게 된다. 엄청난 통찰을 담은 빛나는 작품이다." - 앨런 무어(Alan Moore)**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과 맞물려 있는 개인들, 그리고 그 개인들이 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찾는지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공포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건설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미 1980년대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실상 미래를 포기했다. 이전까지는 질병, 노동,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다. 1939년 세계 미래생활 박람회나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말이다. 지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하면 환경이 무너지고 좀비가 창궐하고 문명이 종말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미래가 건설된다면, 이 현상은 분명 우려할 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심각한 환경 변화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불평등, 인구변화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기술 발전이 더해져 변화의 속도를 증폭시켜 미래를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의미, 목적과 진심 같이 외면 받아왔던 개념들이,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비록 지금은 좀비 영화와 문명의 종말 같은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의미' '목적' '진심'같은 개념들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이런 개념들을 도구로 삼아서 다시 공포에 맞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나 '목적'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해도 자동화 될 수 없고, '진심' 또한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공상과학에서 예측하는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지난 공상과학의 잘못된 예측들을 독자와 함께 돌아본다. 그리고 현재의 변화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뭐가 놓여 있는지 다시 곰곰이 보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희망차게 단언한다.

4년 전, 저자는 『상상보다 낯선: 20세기 이해하기(STRANGER THAN WE CAN IMAGINE: MAKING SENSE OF THE 20TH CENTURY)』라는 책에 20세기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담아 독일 일본 등 7개 국의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세기는 역사의 선형적 발전이 멈추고, 엄청난 규모의 혼돈 상태가 된 시대라고 말하며, 저자는 학술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아메리칸 드림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재미있게 풀어내었다. 전작 못지 않은 신선한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의 문제에 다시 참여한다면, 그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서문: 시대의 코미디
1장: 교체된다는 것
2장: 화살표 비행 예측
3장: 패턴
4장: 메타 모던 세대
5장: 지구는 파랗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6장: 실제와 가상 사이
7장: 초자연적인 공해
8장: 고치기
9장: 개인보다 많은

<작가 소개>

John Higgs는 Stranger Than We Can Imagine, Watling Street과 컬트 클래식이 된 KLF 등 호평을 받은 세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이전까지 없었던 해석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독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글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제목 : THE LAST RESORT
가제 : 리조트: 천국과 위험이 공존하는 해변
저자 : Sarah Stodola
출판사: Ecco
발행일: 미정(프로포절 원고)
분량 : -
장르 : 에세이

*** 일상에 찌든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몰리는 해변 리조트, 서구사회의 특징적인 휴가 방식에서 전 세계로 확장된 리조트 문화의 역사와 저자의 체험, 위태로운 미래를 진단한 책**

테라스에 나가면 탁 트인 바다와 해변이 보이고 해가 잘 드는 선 베드에 느긋하게 누워 칵테일을 즐기는 여유, '리조트'하면 떠오르는 풍경이다. 호텔과 별개로 리조트로 분류되는 휴양지, 특히 바닷가에 주로 자리한 숙박 시설은 그저 잠을 자는 곳을 뛰어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섬에 들어온 것처럼 '바깥 세상'을 모두 잊고 오로지 휴식과 즐거움만 생각하며 꿈 같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특정 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몇 년간 저축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휴양의 방식 중에서 리조트에 매료될까? 지난 8년간 서핑에 푹 빠져 해변에 살다시피 했다는 저자는 자연히 유명 해변마다 빠짐없이 우뚝 서 있는 리조트에 호기심을 갖고, 자신처럼 리조트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천국'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질을 발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이야기한다. 왜 발리에 있는 리조트나 코스타리카에 있는 리조트나 별반 차이가 없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굳이 그곳까지 와서 리조트 수영장 선 베드에 누워서 휴가를 보낼까? 저자는 하와이부터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평온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리조트 문화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행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리조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뜻밖의 놀라운 영향력을 설명한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이 예측을 넘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해변에 더 가까이 세우려고 주력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실태와 해변이 사라지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라지게 될 리조트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다.

헤지펀드 매니저, 방학을 맞아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러 온 젊은이들, 신혼여행객 등 세계 각지에서 리조트를 찾아온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직접 체험한 리조트의 독특한 특성과 함께 저자는 19세기 몬테카를로 리조트를 시작으로 한 리조트의 발달 역사를 정리한다. 20세기 초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아름다운 해변에 속속 등장하며 일상에서의 탈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리조트는 전후 중산층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좀 더 호화롭게, 특별한 휴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강화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는 해변 지역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점점이 자리했던 방갈로가 있던 자리에는 객실이 최소 수천 개에 이르는 초대형 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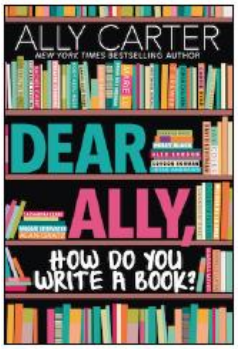
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리조트 문화의 폭발적인 인기는 서구 사회를 벗어나 일본, 남미로 확대된데 이어 중국, 인도 등 더 먼 곳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 해변의 풍경은 물론 휴가를 보내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저자는 왜 사람들이 리조트 특유의 문화에 환호하는지 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리조트가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천국 같은 휴식'로 대표되는 이 리조트 문화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한다.

<목차>

1장. 모든 열망이 만나는 곳
2장. 거대한 건물 숲
3장. 나만의 해변을 찾아서
4장. (과도한 개발로 인한) 실락원
5장. 세계로 향한 서구식 여가생활
6장. 미처 보지 못한 경제의 엔진
7장. 인도네시아 섬 두 곳에서 벌어진 일
8장. 여기까지
9장. 유령: 바이아, 로커웨이, 아카풀코
10장. 무너지기엔 너무 거대한 곳
11장. 더 나은 길

<저자 소개>

새라 스토돌라(Sarah Stodola)는 여행, 문화 저널리스트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네이션」, 「CNN 트래블」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문학 잡지 「Me Three의 창립자이기도 하며 현재 웹 사이트 <Flung Magazine>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Process: The Writing Lives of Great Authors』(Amazon, 2015)가 있다.



제목 : DEAR ALLY: HOW DO I WRITE A BOOK

가제 : 앨리 님, 책은 어떻게 쓰나요

저자 : Ally Carter

출판사: Scholastic Inc.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336쪽

장르 : 실용/글쓰기

*** 친근한 문체로 풍성한 정보와 큰 격려를 주는 가이드" - 「커커스 리뷰」**

이야기를 한 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문득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아서 떠오르는 대로 첫 부분을 써내려 갔지만 어느 순간 꽉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 혹은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거의 다 완성됐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 쓰기 안내서가 완성됐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여러 차례 오른 YA 작가인 저자는 소설가를 직업으로 진지하게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 취미 삼아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글쓰기 가이드를 제시한다. 10년간 총 15권의 책을 내면서 저자가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사실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에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한편, 글쓰기의 즐거움과 오직 글을 쓸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기분을 이야기하면서 글쓰기를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어릴 때부터 독서 광이었고 글을 쓰고 싶어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특히 소설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야기와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각 장에서 소설 쓰기 단계를 나누어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계획 단계, 소설에 등장할 세계관의 수립, 등장인물 만들기, 줄거리 잡기, 초안 완성하기, 편집하기로 구성되는 각 단계를 거쳐 현재 소설책의 출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저자는 소설가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글쓰기 자체의 즐거움에 집중해야 하는 직업이며,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글쓰기 과정을 소개하지만 사실 이야기 하나를 완성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즉 전체적인 흐름은 인지하되, 글을 쓰는 사람마다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소설가가 해야 할 일임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Z 브루어(Z Brewer), 데이비드 리바이선(David Levithan), 소만 차이나니(Soman Chainani), 멜리사 드 라 크루즈(Melissa de la Cruz) 등 30여 명의 유명한 YA 작가들이 직접 밝힌 글쓰기 팁과 조언도 곳곳에 담겨 있다. 작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가령 성별이나 인종 등이 아예 다른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도 다루어지며, 적당한 갈등과 긴장감이 가미되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줄거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면서도 사실상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저자 나름의 해법을 소개한다.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막막하기만 한 사람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을 함께 제공하는 친근한 고민 상담가 같은 정보서로, 저자 특유의 위트 넘치는 설명이 돋보인다. 글을 직접 써보려는 사람 외에도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 과정과 절차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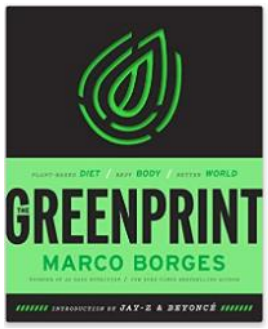
<목차>

1장. 머리말
2장. 준비
3장. 어떤 책을 쓸지 계획하기
4장. 세계관 구축
5장. 등장인물의 탄생
6장. 줄거리 키우기
7장.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쓰고 있는지 파악할 것
8장. 초안 쓰기
9장. 편집하기
10장. 글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11장. 시리즈 쓰는 법
12장. 출판하기
13장. 미래를 계획하자

<저자 소개>

앨리 카터(Ally Carter)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allagher Girls』, 『Heist Society』, 『Embassy Row』 시리즈를 쓴 작가로 주로 스파이, 도둑, 십대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써 왔다. 현재까지 발행된 책들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THE GREENPRINT
가제 : 녹색 발자국
저자 : Marco Borges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분량 : 304쪽
장르 : 건강



* 아마존 베스트셀러 #4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판권 계약
* "현 세대, 미래 세대가 미국의 근대 역사에서 식물 중심의 음식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먹도록 장려할, 혁신적인 운동이 될 만한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술가, 의학박사 딘 오니쉬
* "저자는 평생의 연구와 성실한 경험으로 얻은 결과를 실행 가능한 청사진으로 바꾸고, 마침내 우리의 건강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도 함께 제공한다" – 베스트셀러 『Finding Ultra』의 저자 리치 롤

환경 보호 분야에서 사용되는 '탄소 발자국'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측정해서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굴뚝처럼 눈에 보이는 시커먼 연기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나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들도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면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고 여겨진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건강 관리 프로그램 '22일 혁명'을 개발하여 비욘세 등 유명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채식을 이끌었던 저자는 이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우리의 식생활에 적용한 '식물 발자국' 프로그램을 이 책에서 새로 선보인다. 이산화탄소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처럼 식물 중심의 식생활이 개개인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이 프로그램에는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음식에 관한 생각을 크게 바꿔줄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효과가 검증된 22가지 가이드라인을 '법칙'으로 제시한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식물 발자국을 늘림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부가적이지만 가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식생활 개선, 변화 계획을 상세히 밝힌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제시하는 채식 프로그램은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동부 해안의 우수한 민간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녹색 발자국' 프로그램에 관한 임상 시험이 수십 일간 진행되었으며 44일간 꾸준히 해당 프로그램의 법칙을 따른 참가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육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거에는 식량으로 활용했던 축산 동물들이 농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자랐고 화학적인 성분은 비료로도, 약으로도 거의 공급되지 않았던 반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농장에서 더 싼값에 육류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와 호르몬을 때려 붓듯이 사용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지방과 설탕, 온갖 첨가물, 독성물질 함량은 터무니 없이 높고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역시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고 살았으니 몸은 불어나고, 병까지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저자는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건강도, 지구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녹색 발자국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총 22가지 법칙이 제시된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이 법칙을 일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3단계 계획도 함께 제시하여 단 몇 주 만에 풍성한 통 곡류와 콩, 견과류 등 맛있고 영양도 가득한 채식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다. 60 편이 넘는 레시피와 함께 인상적인 변화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목차>

서문: 제이 Z와 비욘세
준비 단계: 그린 프린트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 그린 프린트의 법칙
법칙 1. 식물을 더 많이 먹고 나머지는 전부 줄여라
법칙 2. 실패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다 - 그저 계획을 세우지 못할 뿐
법칙 3. 더 먹을수록 체중은 줄어든다
법칙 4. 물은 생명의 연료
법칙 5. 심장을 지켜라
법칙 6. 마음을 보살펴라
법칙 7. 건강과 수명을 관리하는 지름길
법칙 8. 먹기 전에 지구부터 생각하자
법칙 9. 사랑을 되돌려주는 음식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하 생략, 법칙 22까지 구성)
2부. 그린 프린트의 법칙에 따라 살기 - 3단계 변화 계획
결론. 그린 프린트가 되라

<저자 소개>

마르코 보게스(Marco Borges)는 운동 생리학자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2 Days Nutrition』을 썼다. 식물이 중심이 되는 식생활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20년 이상 라이프스타일 코치로 활약 중이다. http://www.marcoborges.com/

Marketing and Publicity Plans

PUBLICITY

NATIONAL BROADCAST

January 8 NBC-TV/The Today Show (2 hits; 8 am and 10 am hour)

January 23 Steve (Harvey) Daytime Talk (Taping Jan. 15th)

Late January Live With Kelly and Ryan (Taping January 7th to air end of January/early Feb)

February The Dr. Oz Show (air date TBC)

PODCAST

January TK MindBodyGreen (Taping Date Jan. 8th)

January TK Rich Roll (Taping date Jan. 17th)

LOCAL MARKET:

January 9 TV Satellite Tour, 14-16 cities (markets TBC)

ONLINE:

January MindBodyGreen.com (feature on the book to post mid to late January)

January Essence.com (feature on book to post early January)

October 24 Essence.com (media partner to announce the Greenprint program)

MARKETING

SOCIAL MEDIA/INFLUENCER PROMOTIONS

10/23: GreenprintProject.com updated with book cover, description and retailer links

10/24: Social media and enews announcement about The Greenprint Project, using image of the book (600,000 reach)

11/1: Marco starts deploying quote graphics on social channels (300,000 reach)

TBD: Beyoncé and Jay-Z to promote sweepstakes to win free concert tickets for life, with link to GreenprintProject.com, on social channels (200M combined reach)

12/17: Launch incentive campaign; gifts include sneak peek excerpt booklet, discount off 22 Days Nutrition products, free trial membership for Meal Planner & postcard encouraging social posts/photos

Week of 12/17: Influencer mailings to Marco's VIP clients like Shakira, Jennifer Lopez, Sean Combs, Ryan Seacrest, Pharrell Williams, with signed book, personal note, Greenprint pin and postcard encouraging social posts/photo (400M combined reach)

01/14: Interview on Read It Forward Podcast

01/15: PRH.com video series, "What I'm Reading" posts on PRH YouTube

03/11: Sweepstakes of signed library of Marco's books, promoting Bikini Season Prep

Author Platform:

Website: 22DaysNutrition.com/Book and GreenprintProject.com

Facebook: @22Days 178K followers

Instagram: 88K followers

Twitter: 10K followers

Enewsletter: 300K subscribers

Influencer Reach:

Beyoncé and Jay-Z (200 M fans)

Jennifer Lopez (175 M fans)

Shakira (200 M fans)

Pharrell Williams (32 M fans)

Sean Combs (4 M fans)

Ryan Seacrest (2 M fans)

With a combined reach of over 600 Million